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의 문제가 올바른 대답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언어 분석으로 '해소' 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윤리학의 주된 과제는 도덕 이론을 전개하거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와 진술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치, 경제, 의료, 환경 등 현대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 고 생각한다.

- ① 언어 분석을 통해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윤리적 문제 상황에 도덕 이론을 적용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 ③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될 도덕 원리를 제시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도덕 이론의 적용보다 도덕 언어의 분석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⑤ 각 시대의 다양한 도덕률을 과학적으로 서술해야 함을 강조한다

2.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간은 행위하는 존재이므로 윤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행위는 인과적 파급 효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행위의 힘이 커질수록 윤리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 기술로 인해 인간이 갖게 되는 새로운 행위 능력을 규제할 새로운 윤리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윤리 없이는 기술 능력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압력으로 인해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 ①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윤리적 책임에서 면제시켜 준다.
- ② 새로운 윤리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
- ③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문제를 기존의 윤리로 해결해야 한다.
- ④ 새로운 윤리는 기술에 대하여 가치중립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 ⑤ 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결여될 때 윤리적 공백이 발생한다.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달리 만민법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때까지 만민법에 따라 원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을: 세계를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전에 영양실조와 가난으로 죽어 갈 것이다. 원조의 의무는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을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

- ① 갑: 모든 빈곤국을 원조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 ② 갑: 원조 정책은 지구적 차등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 ③ 을: 질서 정연한 사회의 빈민은 원조의 대상일 수 없다.
- ④ 을: 원조의 의무는 국경을 초월한 세계 시민적 의무이다.
- ⑤ 갑, 을: 원조를 통해 모든 사회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켜야 한다.

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현대 기술 사회에서 기술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기술 시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기술 시민권은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권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그러한 접근권만으로는 기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정책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참여만으로도 기술 정책의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 ① 기술 사회에서는 기술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 ② 기술 사회에서 기술은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 ③ 기술 정책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가?
- ④ 기술 정책은 적절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수립되어야 하는가?
- ⑤ 기술 정책의 정당성은 전문가의 참여만으로 충분히 확보되는가?

5.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 공학자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문제 상황〉

인간과 동등한 정신적 능력을 지닌 로봇을 제작할 수 있다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로봇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



- ① 로봇이 유덕한 품성을 지니도록 개발하세요.
- ② 로봇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개발하세요.
- ③ 로봇이 자기 보존 성향을 지니도록 개발하세요.
- ④ 로봇이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하도록 개발하세요.
- ⑤ 로봇이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도록 개발하세요.

6. 다음 가상 대담 속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 선생님께서는 행정체계, 경제체계, 생활 세계의 힘의 균형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2.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행정 및 경제체계의 영향력이 과도해져서 시민의 의사가 공적 결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돈과 권력의 힘이 생활세계에서 진리, 올바름, 진실성이라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조건이 작동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말씀이죠?

4. 그렇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공론장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

- ① 공론장에서 행정 및 경제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 ② 공론장에서 기업과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 ③ 공정한 담론 절차를 준수한 합의의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 ④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의 개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⑤ 공론장에서 정확하고 이해 가능하며 진실한 말로 주장해야 합니다.

7.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결혼은 당사자 간의 애착과 계약에서 출발한다. 가족은 하나의 인격이며 인륜적 정신이다. 부부는 사랑의 감정으로 실체적 통일을 이루고 자녀를 통해 객관성을 지닌 결합의 전체를 이룬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들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한편 자녀가 법적 인격과 자신의 재산을 갖추어 가정을 꾸릴 자격이 생길 때 가족의 해체가 시작된다.

— < 보 기 —

ㄱ. 가족은 부모와 자식이 결합된 인격적인 공동체이다.
 ㄴ. 어린 자녀는 부모가 간섭할 수 없는 개별적 존재이다.
 ㄷ. 부부는 자신들의 자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다.
 ㄹ. 결혼은 남녀 간의 법적 계약이 아니라 애착으로 성립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8. 고대 동양 사상가 갑,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진인(眞人)은 분별심으로 도를 버리지 않고, 인위로 자연을 돕지 않는다. 자연은 삶을 주어 수고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을: 현자(賢者)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이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죽음도 악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긴 삶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한다.

- ① 갑: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처럼 필연적인 과정이다.
- ② 갑: 삶과 죽음의 분별에서 벗어나야 도에 일치할 수 있다.
- ③ 을: 죽음을 통해 인간의 쾌락과 고통의 감각이 소멸된다.
- ④ 을: 불멸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날 근거는 내세의 행복에 있다.
- ⑤ 갑, 을: 이상적 인간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9. 갑, 을이 <사례>에 대해 취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소수자들이 받은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기회의 재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을: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노력이나 업적과는 무관하게 소수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일반 사람들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들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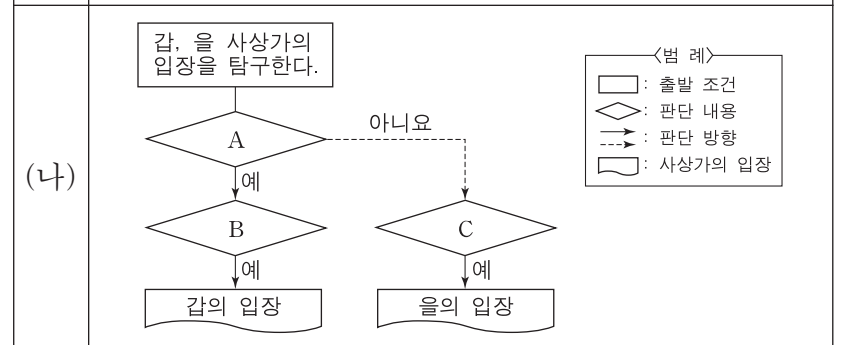
유럽계 미국인 A는 미국의 B 의과 대학에 지원했다. 그런데 이 대학은 소수 집단 학생의 수를 늘리기 위해 입학 정원의 16%를 그들에게 할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A는 우수한 입학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했다. 이에 A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① 갑: 입학 정원에서 소수자의 몫을 할당하는 것은 정당하다.
- ② 갑: 소수자를 우대하는 입학 정책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한다.
- ③ 을: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는 입학 정책은 공정 경쟁을 해친다.
- ④ 을: 소수자의 입학을 위해 다른 지원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소수자를 우대하는 입학 정책은 부당한 역차별을 심화시킨다.

10.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공리주의는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대하지만, 나의 정의론은 정의의 원칙을 원초적 합의 대상으로 본다.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므로 정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을: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부차적 위치에 두지만, 나의 정의론은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 존중의 대상으로 본다. 최소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므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 < 보 기 —

ㄱ. A: 공리의 극대화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가?
 ㄴ. B: 원초적 합의는 심리학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배제할 필요가 없는가?
 ㄷ. B: 기본 제도가 공정해야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협동이 가능한가?
 ㄹ. C: 최소 국가는 개인 간의 계약이행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접근 능력과 정보 수용 능력을 가리킨다. 정보 격차는 주로 그러한 능력들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약자에게 정보 접근 및 수용 능력을 제공하는 정보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을: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매체의 쌍방향성이 강화됨에 따라 접근 및 수용 능력 이외에 정보 생산 능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정보 격차는 주로 정보 생산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므로 정보 생산 능력을 제공하는 정보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① 갑: 정보 약자에게는 정보 접근 능력만을 제공해야 한다.
- ② 갑: 정보 격차의 주된 원인은 정보 생산력의 차이에 있다.
- ③ 을: 정보 복지의 핵심 과제는 정보 기기의 평등한 분배이다.
- ④ 을: 정보 약자가 정보 생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갑, 을: 정보 리터러시는 접근 및 수용 능력에 국한되어야 한다.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다수에게 순응하기보다 그들에게 온 힘을 다해 맞설 때 소수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양심이 아니라 다수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정부는 정의에 입각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을: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표현한다. 법에 대한 충실성은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불복종의 의도를 보여 준다.

— < 보 기 > —

ㄱ. 갑: 정의로운 정부에서는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의 시민을 지배한다.
 ㄴ. 을: 시민 불복종은 국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위법 행위이다.
 ㄷ. 을: 모든 시민은 언제나 다수가 결정한 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ㄹ. 갑, 을: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예술 작품에 대한 기술적 복제는 수공적인 복제보다 더 큰 독자성을 지니며, 예술 작품의 존속에 아무런 손상도 입히지 않는다.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 가능성의 시대에서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위축된다. 그러나 사진이나 영화와 같은 영역에서 대량 복제 기술은 대중들로 하여금 개별적 상황 속에서 복제품을 쉽게 접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시 가능성을 중시하는 대중 예술이 기존의 제의(祭儀) 의식에 바탕을 둔 예술을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예술 작품은 새로운 기능을 지닌 형상물이 된다.

- ① 대중 예술은 원칙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의 가치를 높여 준다.
- ② 대중 예술은 표준화된 생산을 통해 미적 체험을 제공한다.
- ③ 대중 예술의 복제 기술은 예술 작품의 신비감을 축소시킨다.
- ④ 대중 예술의 복제 기술은 대중과 예술 작품의 거리를 좁힌다.
- ⑤ 대중 예술에서는 예술의 숭배 가치가 줄고 전시 가치가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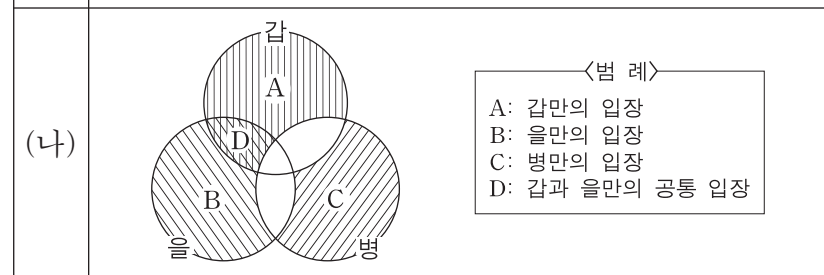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노동을 '신이 규정한 삶의 최고 목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청교도는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에 따라 노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 영리 추구와 결합하고 금욕적 절약을 통해 자본을 형성하여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
 을: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자연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이 일어난다.

- ① 갑은 청교도가 노동을 신의 명령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 ② 갑은 청교도가 부의 축적을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 ③ 을은 자본주의의 노동 분업이 노동 소외의 원인이라고 본다.
- ④ 을은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의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 ⑤ 갑은 소명 정신, 을은 노동 착취를 자본 축적의 원천으로 본다.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평등의 논리를 인간에게만 적용하고 종들 간의 관계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임의적이다.
 을: 욕구를 가진 존재는 타자와 구분되는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 이 존재는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의 주체이며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병: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며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존재이다. 인간은 생명체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 보 기 > —
 ㄱ. A: 종의 차이만으로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ㄴ. B: 삶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를 의무론의 관점에서 존중해야 한다.
 ㄷ. C: 인간에게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
 ㄹ. D: 개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6. 다음 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군자는 밥을 먹을 때 다섯 가지를 살피야 한다. 우선 밥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와 밥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덕행이 완성되었는지를 헤아려서 공양(供養)을 받아야 한다. 마음을 절제하여 탐욕을 없애야 한다. 바른 처사와 좋은 약으로 건강을 보살피야 한다. 끝으로 도덕을 이루어야 먹을 자격이 있다. 즉 군자는 먹을 때에도 인(仁)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 ① 먹는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살피는 덕의 실천이다.
- ② 먹는다는 것은 자연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행위이다.
- ③ 먹는다는 것은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돌보는 과정이다.
- ④ 먹는다는 것은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문화적 행위이다.
- ⑤ 먹는다는 것은 자연을 인간의 소유로 만드는 과정이다.

17.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전쟁이 끝난 후 잠시 평화가 찾아와도 국가들은 더욱 강화된 재무장과 적대 정책을 세운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국가 간의 항구적인 평화 조약이 요구된다.
 을: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이며,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속일 뿐이다. 불가능한 평화를 얻으려고 지금 얻을 수 있는 승리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다.
 병: 전쟁은 찬양되어서는 안 되지만, 도덕적 제약을 전제로 최고의 합법적 권위에 의해 선포되는 경우와 나를 지키기 위해 적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 ① 갑: 항구적 평화는 국가 간의 세력 균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 ② 을: 전쟁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최후의 정치적 수단이다.
- ③ 병: 자국의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전쟁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 ④ 갑, 을: 전쟁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권을 보장할 때 정의롭다.
- ⑤ 을, 병: 전쟁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이다.

18.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거주(居住)함은 인간 존재의 근본 특성입니다. 인간은 현존재로서 땅, 하늘, 신적인 것들, 죽을 자들의 본질을 사물들 안으로 가져와 소중히 보살피며, 세계 안에서 건축하고 사유하면서 거주합니다. 인간은 자기 공간의 중심이 되며, 인간이 움직일 때마다 사물의 연관 체계로서 공간도 함께 변화합니다. 인간이 건축함과 거주함에서 사유함을 잊을 때 고향 상실이 일어납니다. 이때 거주함에 대해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거주 공간이 상실되어 탈공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은 잃어버린 고향에 대해 숙고하고, 고향을 되찾아야 합니다.



- ① 인간의 거주 공간은 체험과 무관한 객관적 공간이다.
- ② 인간은 고향을 되찾기 위해 거주 공간을 떠나야 한다.
- ③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공간을 지배하고 통제해야 한다.
- ④ 인간은 사물을 보살피면서 거주 공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⑤ 인간은 거주함으로써 신적인 것들과 죽을 자들에게서 해방된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권한은 사회계약으로부터 나온다.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해야 한다.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을: 범죄에 대한 형벌은 사회의 최대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일반인에 대한 경고에 있다. 사형은 그 범죄자가 살아 있는 것이 나라 전체를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에만 적합한 형벌이다.

— <보기> —

ㄱ. 갑: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사형보다 우월한 형벌이 존재한다.
 ㄴ. 을: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동해보복을 위한 필요악이다.
 ㄷ. 을: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ㄹ. 갑, 을: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자기 유전 정보를 '아는 것이 병'입니다. 자신의 유전 정보에 대한 앎은 미래의 유전 질환에 대한 불안, 공포 등의 해악만 야기할 뿐입니다. 따라서 해악 금지의 원칙에 따라 자기 유전 정보를 '모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을: 자기 유전 정보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신의 유전 정보에 대한 앎은 미래의 유전 질환을 감안하여 스스로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 줍니다. 따라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자기 유전 정보를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보기> —

ㄱ. 갑: 자기 유전 정보를 알아야 불필요한 해악을 막을 수 있다.
 ㄴ. 갑: 자기 유전 정보에 대한 무지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
 ㄷ. 을: 자기 유전 정보를 알아야 자율적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된다.
 ㄹ. 갑, 을: 미래의 불가피한 유전 질환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